



화정초, 주월초, 광주서초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타악퍼포먼스팀이 북을 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교육문화공동체 결 제공〉

아이들이 행복한 동네 '화월주'

화정·월산·주월동 주민들 지역교육 네트워크 창립

맞춤형 예술교육·열린 우리동네 프로젝트 등 진행

아이들이 행복한 동네 만들기 지역 주민들이 나섰다. 아동·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교육문화공동체 결(대표 민문식)은 오는 12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청소년수련원에서 '지역교육 네트워크 화월주'(이하 화월주)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화월주'는 화정, 월산, 주월동 인근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기관, 문화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꾸린 아동·청소년 교육지원네트워크이다.

이들이 이 모임을 꾸린 이유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은 학교 담장을 넘어서 공적 영역인 마을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첫 모임을 시작한 '화월주'는 창립을 위해 1년 동안 차분히 준비해왔다.

매달 정기모임을 열어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의의와 전망을 토론했고, 지난 8월에는 지역주민과 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창립준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화월주'는 창립에 앞서 아이들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광주지부,

우리아이희망 광주남구센터 등 청소년 상담전문가들이 참여한 '희망지원 전문팀'을 운영 아동·청소년 긴급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술과 나무'라는 문화예술교육 연구팀을 가동,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의 감수성을 깨우고, 다양한 재능을 발굴해 아이들에게 공동체적 심성을 불어넣기 위한 이 프로그램에는 인근 초·중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학생들이 참여해 아카펠라, 오페라, 댄스, 타악퍼포먼스를 배우고 있다. 이번 창립식 행사 때는 그동안 갖고 있던 기량을 뽐낼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다.

'화월주'는 또 공동체 신뢰 회복 사업 일환으로 '열린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지역의 문구점, 약국, 슈퍼, 지역 아동센터 등의 화장실을 개방하고 전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다. 이웃간의 정이 사라지고 불신이 깊어가는 시대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나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다.

교육문화공동체 결의 실상수씨는 "아이들의 꿈과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면서 "화월주가 주축이 되어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돌봄과 가르침이 넘치는 행복한 동네를 꾸러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문화 공동체 결은 내달 2일 CMB 광주방송국 1층에서 '화월주'를 홍보하고 사업진행 기금마련을 위해 일일호프를 열 계획이다. 문의 062-432-131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장인의 손끝에서 나온 '한국의 혼'

12~19일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회

한 길을 걸어온 장인의 손끝에서 모과나무 조각은 천년이 지나도 그 빛을 잃지 않는 단아한 탁자로 탄생한다. 묵묵히 '한국의 혼'을 계승하고 있는 광주시무형문화재 가능보유자협회(회장 조기종)가 오는 12~19일 북구 삼각동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2010 작품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화류소목장 조기종, 악기장 이춘봉, 음식장 최영자·이애섭, 필장 문상호·안명환, 악기장 이복수, 대목장 박영근, 나전칠장 김기복씨 등이 참여한다.

조기종씨는 조선시대 공예품의 질박하면서도 소탈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화류목 2종장, 화장대 등을 전시한다.



조기종 작 '경상'

또 이춘봉씨는 오통나무로 뒷판을 달고 밤나무로 밑판을 만들어 맑은 소리가 뽐보이는 가야금을 출품했고, 최영자씨는 사군자로 표현한 육포와 한과를 선보인다. 문의 062-575-888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내 마음의 소리'

18~24일 김영자 개인전

서양화가 김영자씨가 오는 18~24일 광주 예향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내 마음의 소리'를 주제로 푸른빛의 산 야경과 맨드라미, 수련, 민들레를 화폭에 가득 담아 선보인다.

갈대밭에 숨어있는 파랑새, 무리지어 피어있는 들꽃, 분홍장미 위에 앉아있는 벌 등 서정적인 장면을 포착해 냈다.

꽃을 소재로 한 '사랑' 연작은 따뜻한 색감과 두터운 질감이 돋보이고, 마음 속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연작은 낮은 벽에 나서듯 한 듯한 고즈넉



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영호남미술교류전, 아등문화예술인전, 프랑스 3개 도시 순회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한국미술협회, 아등미술문화예술인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5-004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종교문화학회

사랑 나눔 삼소에 술제 내일 5·18문화센터

내일 추계학술대회

한국종교문화학회는 12일 오후 1시 30분 전남대 인문대 1호관에서 '종교와 예술의 세계'라는 주제로 제11회 2010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소장 김기현)가 주관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진익송(충북대 교수), 김형부(인천가톨릭대 교수), 신창운(서양화가) 씨가 각각 '예술창작에 있어 종교적 성향의 진정성' 등에 대해 발표한다. 전남대 이경화, 최성식, 김경화 교수 등이 논평자로 참여한다.

한국종교문화학회는 종교간 이해와 화합의 풍토를 조성하고, 종교정신의 심화와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가꾸기 위해 연구·실천하는 학자와 종교인들의 모임으로 2005년 창립됐다. 문의 062-530-391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10 사랑 나눔 삼소에술제가 12일 오후 7시30분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다.

'삼소'는 회장을 맡고 있는 재즈피아니스트 성현용씨를 비롯해 국악, 무용, 재즈,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4년 전 결성한 모임이다.

방송인 강현구·오현화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무대에서는 이예숙 한 국무용단, 소리꾼 심미숙, 민요가수 이애자, 무드팝스 싱어즈, 트럼펫 연주자 안병철, 재즈 보컬리스트 이용호, 아쟁 연주자 박종호씨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이날 무대에서는 가요 '그대 그리고 나'로 유명한 소리새가 찬조 출연한다.

또 회원이 화가 이창호씨와 도예가 남태운씨의 작품도 판매한다.

수익금은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655-145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번달엔 '두물머리 연가' 배워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12월 호신대 카페

광주 출신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유섭 시인(사진)의 작품은 아름다운 멜로디와 어우러진 가곡으로 다시 탄생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가곡만 100여곡에 달하고 찬송가도 20여편에 이른다.

한달에 한번(매월 두번째 주 금요일)씩 모여 가곡 사랑을 나누는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http://cafe.daum.net/gjkrson)가 11월에는 노시인의 작품인 '두물머리 연가'

(김광자 곡)와 '사랑할 때'(김동환 곡)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12월 오후 7시30분 호신대 내 카페 티브라운.

이번 모임에서는 또 조진태와 독일 부퍼탈 국립음대를 졸업한 소프라노 임현진씨가 이흥렬 곡 '꽃구름 속의'와 노시인의 작품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를 선사한다.

또 이용우·박영래·이용조씨 등 회원들도 노래 솜씨를 선보인다. 티켓(1만원)을 구입하면 간단한 차와 맥을 즐기며 제공한다. 문의 016-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인·가수가 함께 해남도서관음악회

우수도서관 선정 기념, 12월 해남문예회관

시와 음악이 있는 도서관음악회. 해남군립도서관은 12월 오후 7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인과 가수가 함께하는 도서관음악회를 개최한다.

전국도서관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선정을 기념하는 이번 음악회는 해남 출신 작가 윤삼현 시인을 초청해 시와 문학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고래사랑'의 가수 송창식씨가 '한반도' 등 자신의 히트곡을 독특한 음색으로 부른다. 가수 유심초, 신계행씨도 출연 '사랑이여', '가을사랑' 등 히트곡과 시노래를 들려준다. 이야기 손끝으로 초대된 윤 시인



은 지금까지 시집 '유채꽃 풍경'과 '엄마 휘파람새'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다. 티켓가격 1만원, 도서관 독서회원엔 30%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061-530-545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이번 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가 여러분의 가까이 있습니다.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빔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 **문의 525-2111**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어름 보양 메뉴 : 굴비정식, 삼계탕, 장어정식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영화에 빠지다

덩거운 연인과 함께!!

상무점 향토사랑 영화시영 **클롬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엔스토퍼블 (12세)	1관	초능력자 (15세)
2관	심야의FM(18세)/데블 (15세)	2관	부당거래 (18세)
3관	부당거래 (18세)	3관	불량남녀 (15세)
4관	부당거래 (18세)	4관	가디언의전설 (전제)
5관	대지진 (전제)/초능력자 (15세)	5관	나탈리(18세)/돌이킬수없는 (15세)
6관	불량남녀 (15세)	6관	레드 (15세)
7관	레드 (15세)	7관	초능력자 (15세)
8관	불량남녀 (15세)/돌이킬수없는(15세)	8관	엔스토퍼블 (12세)
9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9관	부당거래 (18세)
10관	초능력자(15세)	10관	대지진 (전제)/데블 (15세)
11관	초능력자(15세)	11관	엔스토퍼블(12세)/소외함께 여행하는법 (15세)

향토사랑! 영화시영! 매일 심야시영/호남최대주자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MEGABOX

M관	초능력자 (15세)	최고급관
2관	부당거래 (18세)	
3관	레드 (15세)	
4관	엔스토퍼블(12세)	
5관	가디언의전설(3D)(전제)	
6관	불량남녀 (15세)	
7관	초능력자 (15세)	
8관	부당거래 (18세)	
9관	초능력자 (15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CINUS

1관	부당거래 (18세)
2관	초능력자 (15세)
3관	불량남녀 (15세)
4관	심야의FM(18세) / 데블 (15세)
5관	레드 (15세)
6관	엔스토퍼블(12세)
7관	초능력자 (15세)

색깔있는 영화시영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

상당현원결 발명--(1번 or 2번)--0번
1588 - 7941

구. 런던역국사거리
1544 - 0600

북구보건소 건너편
1544-0070, 511-1000